

토트넘, EPL 1부 잔류 경쟁 '초조'

리즈와 홈 경기서 1-1 비겨
2부로 강등될 확률 18.7%
18위 웨스트햄과 승점 2 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리즈 유나이티드와 비기면서 불안한 잔류 경쟁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12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와의 2025~2026시즌 EPL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토트넘(승점 38)은 17위 리즈(승점 44)는 14위에 자리했다. 리그 종료까지 두 경기가 남은 가운데 EPL 최종 18~20위는 다음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으로 강등된다.

토트넘은 강등권인 18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승점 36)에 승점 2 앞서 있다.

남은 시즌 토트넘은 9위 첼시와 10위 에버턴(이상 승점 40)을, 웨스트햄은 1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46)와 리즈를 차례로 상대한다.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는 토트넘, 웨스트햄의 강등 확률을 각각 18.7%, 81.3%로 전망했다.

안방으로 리즈를 불러들인 토트넘은 전반전 상태를 압도했으나 10개 슈팅 중 유효 슈팅이 2개에 그쳤다.

후반전에 돌입한 토트넘이 힘겹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마티스 텔(오른쪽).

결실을 봤다. 후반 10분 페드로 포로의 코너킥 이후 마티스 텔이 볼을 잡았고,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우측 상단에 꽂혀 골망을 갈랐다. 교체 없이 경기를 풀어가던 토트넘

이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24분 텔이 공중볼을 걷어내기 위해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디오판독(VAR) 끝에 페널티킥을 내렸다. 웨스트햄은 후반 29분 도미니 칼버

트르윈이 기록한 페널티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남은 시간 토트넘은 루카스 베리발, 제임스 매디슨, 제드 스펜스를 차례로 교체 투입했지만, 리드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다. /뉴시스



순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이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경쟁력 재입증

동아일보기 전국대회... 남자팀 단체전 3위
여자팀 하야시다 리코, 단식·혼합 복식서 우승

순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이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팀(홍정현 감독)은 단체전 3위에 오르며 뛰어난 팀워크와 저력을 입증했다. 여자팀(김옥임 감독)에서는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개인 단식 부문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혼합복식 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

쳤다. 또 진인대 선수 역시 같은 종목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의 탄탄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 무대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의 활약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노무한 박수'?... 일베 논란 터진 롯데 자이언츠, 공식 사과

비판 여론은 여전... 야구팬들 "강력한 후속 조치 필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공식 유튜브 영상 자막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일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공식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일베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문제의 내용은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 TV'에 올라온 경기 비하인드 영상으로, 전날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롯데가 7대3으로 승리한 뒤 선수 대기석의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된 장면에는 롯데 선수들이 동료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과 함께 노진혁 선수의 뒷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이와 동시에 화면 오른쪽에는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그러나 자막 위치가 노진혁 선수의 상인 '노'자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노무한 박수'처럼 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주를 연고로 하는 상대 팀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였고, 노진혁 선수 역시 광주 출신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며 특정 지역 비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상 댓글에는 "무슨 의도로 자막을 단 것이냐", "공식 채널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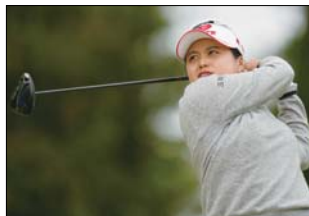
논란이 커지자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 운영진은 댓글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구단 측은 "금일 업로드된 영상 내

자막 표현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됐고 확인 즉시 해당 장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구팬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논란이 크게 확산된 데다 선수 개인에게도 모욕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과 이후에도 영상 댓글 창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팬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실망이다", "노진혁 선수에게도 직접 사과해라", "(담당자)징계를 더 확실하게 하라"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앞서 2026 시즌 대만 스포츠클럽 도박 논란과 팬 비하 발언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뉴시스



최혜진,女골프 세계랭킹 15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공동 3위로 시즌 세 번째 톱10을 달성한 최혜진의 세계랭킹이 소폭 상승했다. 최혜진은 12일(한국 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17위에서 2계단 뛰어 15위에 자리했다.

전날 최혜진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파72)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는 넬리 코르다(미국), 2위는 지노 티미쿰(태국), 3위는 김효주가 유지했다. /뉴시스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축제' 성료

정읍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읍체육공원과 태인성 황축구장에서 전국 128개 팀 1500여 명의 축구 꿈나무가 참가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과 정읍시축구협회 주관 이번 대회는 참가팀이 많아 경기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동화리그와 농민리그로 나누어 진행했다. 조별 예선과 승자 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1차 대회 우승팀이 가려졌다. 8세 이하(U-8) 동화리그는 전북현대U8이 농민리그는 애플라인드가 우승을 차지했다. 9세 이하(U-9) 동화리그는 전북현대U9, 농민리그

는 진주FC가 정상에 올랐다. 10세 이하(U-10) 동화리그는 FC스퀘어, 농민리그는 BEST1RED가 1위를 거머쥐었다. 11세 이하(U-11) 동화리그는 거제에이원 농민리그는 구미리스펙트FC가 우승컵을 안았다. 최상위 연령인 12세 이하(U-12) 동화리그는 낫산FC, 농민리그는 에스엔텐 풋볼클럽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이어 열린 2차 대회에서 8세 이하와 9세 이하 연령대는 하이두축구클럽이 두 그룹 모두 우승을 휩쓸었다. 10세 이하 동화리그는 하이두축구클럽, 농민리그는 S.S FC가 정상에 올랐다. 11세 이하 동화리그는 조동식FC, 농민리그는 대상FC가 우승을 차지했다. 12세 이하 동화리그는 정읍로얄FC가, 농민리그는 구미리스펙트FC가 각각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